

<엄마의 의자>

■ 연출 및 지도 : 오연주

■ 출연자 : 민후남, 김현자, 홍선화, 김소향, 전성미, 방명숙, 이명주, 이주영, 김인순, 윤영 (출석부 순 / 10명)

■ 등장인물 : 해설, 엄마1(이향순), 엄마2(송복녀), 엄마3(윤금애), 딸1(김선자), 딸2(홍미숙), 딸3(박남희), 공유부엌 이꿈이(서영선), 사장, 주간보호센터 보호사, 손녀3(김희은), 목공 선생님(정은순)

■ 엄마1과 딸1의 이야기 : 시장 (객석)

엄마1과 딸1 제외한 배우들 전체가 각자의 위치에 등장해 있다.

오프닝 음악.

오프닝 음악이 페이드 아웃 되며, 엄마1의 노래 소리가 들리며 꽃무늬 양산을 쓴 엄마1 무대에 등장한다.

엄마1은 무대 위의 배우 두 명 정도에게 가서 장을 본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객석 쪽을 바라보더니 객석으로 내려간다.

엄마1은 시장(객석)을 돌아다니며 시장 상인들(관객)에게 인사를 하거나 물건 값을 묻거나 한다.

그러던 중 딸1이 "엄마~!!"를 외치며 무대로 등장하여 엄마를 찾는다. 사람들에게 핸드폰에 있는 엄마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생긴 사람 봤는지 물어보며 엄마1을 찾는다. 딸도 객석으로 내려오고 엄마와 딸이 객석에서 돌아다니다가 엄마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공유부엌 앞에 쪼그려 앉아 토마토를 바라본다.

- 엄마1 : 어, 토마토....

공유부엌 앞을 쓸던 이꿈이가 엄마를 발견하며 인사를 한다.

이꿈이 : 어머~! 어머니! (선자를 찾으며 두리번거리다) 여기서 혼자 뭐 하

세요?

엄마1 :? 누구세요?

이꿈이 : 영선이에요. 선자 언니 친구요. 제가 언니한테 연락할게요. (전화를 걸며 / 신호음 소리)

딸1 : (전화를 받으며) 어! 영선아! 내가 지금 엄마를 잃어버려서...

이꿈이 : 언니! 어머님 여기 계셔. 공유 부엌으로 와.

딸1 : 정말?! 아휴... 고마워. 지금 갈게.

딸1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엄마1을 만나게 된다.

딸1 : (불같이 화를 내며) 엄마!!! 한참을 찾았잖아!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미치는 꼴 보려고 그래?!!!

이꿈이 : (딸1을 말리며) 언니...

엄마1 : (장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아니... 너 내일 소풍 가니까 김밥 싸주려고 장보고 있었지.

딸1 : 내가 소풍을 왜 가?!!!! (울컥하며)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1 : 내일... 소풍 안 가? 내일 비 온대?

딸1 :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아니야. 이제 집에 가자. 영선아, 고마워.

이꿈이 : 아니야.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에 어머님이랑 같이 공유부엌으로 밥 먹으러 와. (엄마1에게) 어머니~ 다음에 또 뵈요~

엄마1 : (토마토를 바라보며) 토마토....

딸1과 이꿈이, 엄마1을 바라봤다가 서로를 바라본다.

전환 음악.

LED 전광판에 제목 <엄마의 의자>가 뜬다.

- 해설 : 치매에 걸린 엄마와 그 엄마를 돌보는 딸의 이야기. 엄마 셋, 딸 셋.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입체낭독극 <엄마의 의자>

▣ 엄마2와 딸2의 이야기 : 딸2의 직장

- 딸2 : (급하게 출근하며)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엄마가 차 키를 숨기는 바람에...
- 사장 : 아유.. 또 그러셨어? 잘 좀 챙겨두지. 자꾸 이렇게 늦어서 어떡해?
- 딸2 :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 해설 : 미숙은 아침마다 복녀와 전쟁을 벌인다. 출근 전에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실랑이를 벌일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전쟁은 출근 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미숙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작은 전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핸드폰 벨소리.

- 딸2 : (전화를 받으며) 네. 엄마. 왜요?
- 엄마2 : 미숙아, 내가 창문을 안 닫고 나왔어. 창문 좀 닫아.
- 딸2 : 엄마, 아까 내가 닫았어. 걱정하지 마셔.
- 엄마2 : 그래? 잘 했다.
- 딸2 : 어~ 끊어요.

- 해설 : 한 번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다.

신경을 긁는 느낌의 정신없는 벨소리들.

- 딸2 : (이를 악물고 빠르게 쏟아내며) 엄마, 지금이 몇 번째야! 창문 닫았다고!!! 열 번도 더 얘기했잖아!!! 비도 안 오는데 도대체 왜 그래?!!! 나도 일 좀 하자!!!
- 보호사 : 저... 홍미숙님이시죠? 여기 보름달 주간보호센터예요.
- 딸2 : 앓!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자꾸 전화를 걸어서...
- 보호사 : 일하시는데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이 옷에다가 실수를 하셔서요. 옷을 챙겨오셔야 할 것 같아요.
- 딸2 : 옷에다가요?
- 보호사 : 네. 여벌옷이 없어요.
- 딸2 :어떡하죠? 지금 갈 수가 없는데....

- 보호사 : 아... 어디 부탁하실 데라도 없으실까요?
- 딸2 : 네... 죄송합니다...

- 해설 : 직장을 다니며 복녀를 돌보는 미숙은 복녀와 떨어져 일을 할 때도 복녀와 딱 붙어있는 것만 같다. 여기저기 죄송하다는 말을 늘 달고 사는 미숙은 가끔 자신이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전환 음악.

▣ 엄마3과 딸3의 이야기 : 딸3의 집

- 엄마3 : (딸을 부르며) 남희야~ 아직도 밥 준비 안 됐니? 배고파!
- 딸3 : (등장하며) 밥? 무슨 밥? 저녁? 좀 아까 드셨잖아요.
- 엄마3 : 무슨 소리야? 먹긴 뭘 먹어? 저녁 안 먹었어.
- 딸3 : 엄마~ 시계 봐봐. 지금 밤 10시잖아요. 7시에 나랑 같이 계란국에 밥 말아 먹었어.
- 엄마3 : 애가 또 헛소리 한다. 내가 밥을 언제 먹었다고 그래? 너만 먹은 거 아냐? 난 안 먹었어.
- 딸3 : 같이 먹었다고요!! 기억 안 나?!!
- 엄마3 : 내가 바본 줄 알아?!!!! 안 먹었다고!!!!

- 해설 : 금애는 밥 먹은 기억을 종종 잊고는 자꾸만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한다. 남희는 기억도 못 하고 고집을 부리는 금애를 보면 답답했다. 게다가 억울한 일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 손녀3 : 엄마, 무슨 일이야?
- 딸3 : 별 일 아니야. 할머니가 또 밥 안 먹었다고 밥 내 오라고 그러셔서.
- 손녀3 : 또? (엄마3에게) 할머니~ 아까 같이 저녁 드셨잖아요. 나도 같이 있었는데.
- 엄마3 : (손녀에게) 안 먹었다니까! 왜 니들은 나를 바보 취급해?
- 딸3: 내가 언제 엄마를 바보 취급했다고 그래?
- 엄마3 : 너는 나를 싫어하지?
- 손녀3 : 할머니~ 엄마가 왜 할머니를 싫어해요. 아니야.
- 엄마3 : 맨날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나만 보면 못

살게 골잡아.

- 딸3 : 누가 할 소릴!
- 손녀3 : 엄마, 그만해!

- 해설 : 남희는 금애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한 번씩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금애가 아파서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순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 매일 매일 선자도 미숙도 남희도 고군분투 하고 있었다. 열심히 엄마를 돌볼수록 몸도 마음도 힘든 나날이 이어졌다.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화가 났다가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던 그때, 치매안심센터 자조모임에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 치매안심센터 자조모임

- 딸1 : 안녕하세요, 김선자입니다. 엄마가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엄마를 돌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생각했던 거 보다 훨씬 더 힘드네요.
- 딸2 :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미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엄마를 돌보고 있어요. 직장에 가 있어도 엄마가 옆에 있는 거 같아요. 매일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 딸3 : 저는 박남희입니다. 저도 엄마를 모시고 있어요. 엄마한테 잘 해드려야지...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었는데 저는 나쁜 엄마인 거 같아요.

- 해설 : 같은 고민을 가진 세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울고 웃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유대가 깊어졌고,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느껴졌다. 서로가 서로의 쉼터가 되어주었다.

▣ 목공 수업

목공 수업 시간. (뒷 화면에 수업 내용 PPT)

- 선생님 : 이렇게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공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 목공 강사 정은순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간단하지만 튼튼하고 편안한 의자를 만들 겁니다. 그 전에 각자 짧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성함이랑 왜 목공 수업을 신청하셨는지 도요.

- 딸1 : 안녕하세요, 김선자입니다. 나무로 무언가 만드는 동안은 명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서 좋더라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 해설 : 선자는 향순이 주간보호센터에 가 있는 동안 목공 수업을 듣기로 했다. 늘 목공을 배우고 싶었지만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동안은 엄마를 돌보느라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이제는 지친 자신을 돌보고 싶었다.

■ 공유 부엌

공유부엌에 이꿈이와 엄마1,2,3, 딸1,2,3 모두 모여있다.

함께 상을 차린다.

- 이꿈이 : (음식을 내오며) 오늘 점심은 비빔밥~!
- 딸2 : 와~! 진짜 맛있겠다~!
- 딸3 :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 이꿈이 : 아유~ 이 정도는 후딱 만들죠~!
- 딸1 : 아니, 근데 어떻게 공유부엌을 할 생각을 했어?
- 이꿈이 : 내가 원래 사람들 뭐 해 먹이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한 밥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내 기분도 좋고,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밥 먹으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언니도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데, 종종 와서 같이 밥 먹고 가. 남이 해준 밥 먹고 싶을 때 있잖아.
- 딸1 : 말만 들어도 고맙다.
- 해설 : 선자와 향순 뿐만 아니라 미숙과 복녀, 남희와 금애도 영선의 공유부엌에서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는다. 나물도 넣고 계란도 넣고 고추장도 한 숟갈 넣는다. 참기름도 빠질 수 없다. 맛있게 먹는 금애를 바라보던 남희가 금애에게 묻는다.

- 딸3 : 엄마, 맛있어?
- 엄마3 : 어. 맛있어. 특히 호박을 잘 볶았네. 호박을 이렇게 맛있게 볶기 쉽지 않는데.
- 이꿈이 : 그쵸? 맛있죠?
- 엄마3 : 최고야.
- 딸3 : 저희 엄마가 비빔밥을 좋아하세요. 옛날부터 맨날 비벼 드셨는데 엄마가 비빔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랑 우리 형제들이 한 입 달라고 앞에서 입 벌리면 엄마가 한 손가락씩 넣어주시곤 했어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엄마 밥 비비는 양푼이 점점 커졌었죠. (엄마3에게) 엄마, 기억나?
- 엄마3 : 그럼, 기억나지. 한 손갈 즐까?
- 딸3 : 응! 아~~

- 해설 : 남희는 옛 추억에 마음이 짠해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자와 미숙의 마음도 어쩐지 뭉클하다.

- 이꿈이 : 그나저나 언니들이 어머님들을 공동육아, 아, 아니지, 공동...돌봄? 한다면서요?
- 딸2 : 네~ 혼자서 엄마 케어 하느라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언니들 만나서 숨통이 좀 트이는 거 같아요.
- 딸1 : 거창한 건 아니야. 그냥 주간보호센터 등하원도 돌아가면서 하고, 누가 일 생기면 잠깐 엄마 봐달라고도 하고, 우리 여섯이서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런 거지 뭐.
- 딸3 :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동네에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게...
- 딸2 : 맞아. 영선씨처럼 마음 써주는 분들이 있는 것도 너무 고맙고.
- 이꿈이 : 아유~ 별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그래도 어머님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라에서도 지원을 더 해주면 좋겠다.
- 딸1 : 점점 더 나아지겠지.
- 엄마2 : 내가 노래 부를까?
- 딸2 : 갑자기? 여기서?
- 엄마2 :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려는 못 노나니~
- 딸2 : 어머 어머.... 엄마!
- 모두 웃음.

- 해설 :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선자와 미숙, 남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사소하지만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었다.

▣ 목공 수업

목공 수업 시간. (뒷 화면에 수업 내용 PPT)

작업 소리. 작업을 마치고 만든 작품을 함께 둘러 본다.

- 선생님 : 정말 멋진 의자를 만드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지요. 나이테를 다른 말로는 '연륜'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살 한 살 충실하게 살아온 나무의 역사가 그려져 있어서겠죠. 우리 인생도 나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한 의자가 되겠죠.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모두 : 감사합니다~~
- 해설 : 선자는 자신이 만든 의자를 보며 향순의 생각이 났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향순의 나이테도 연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선자는 그동안 향순의 품에서 자라왔는데, 이제는 선자가 향순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될 수 있을까? 선자의 마음속에 여러 질문이 솟아올랐다.

전환 음악.

▣ 공유 부엌

딸1이 의자를 들고, 엄마1을 모시고 등장한다.

- 딸1 : (엄마가 쪼그려 앉던 자리에 의자를 내려놓으며) 엄마, 다음부터는 쪼그려 앉지 말고 여기 앉아. (엄마를 의자에 앉힌다.)
- 엄마1 : (텃밭을 바라보다) 토마토...
- 딸1 : 토마토?
- 엄마1 : 토마토가 열렸네. 너 어릴 때 토마토 많이 좋아했잖아. 옛날 집에서 기르던 거 생각나? 토마토 열렸다고 신나서 입에 가득 넣어서 먹던 게 너무 귀여웠는데...

- 딸1 : 엄마...

딸2,3이 엄마2,3을 모시고 등장한다.

- 딸2 : 언니~

- 딸3 : 어머어머~!! 의자 위치가 딱이네!!

- 딸2 : 엄마~ 여기 앉아봐.

- 딸3 : 엄마도.

엄마2,3도 의자에 앉는다.

- 딸2 : 와~ 이렇게 미녀 세 분이 같이 앉으시니까 보기 좋네~!

- 딸3 :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

- 딸1 : 어머~! 좋다. 잠깐만. (공유 주방 쪽으로) 영선아~ 영선아~~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줘~!

- 이끔이 : (등장하며) 어머~! 여기들 다 계셨네요~! 너무 멋지다. 그럼 찍 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 모두 : 김~치~~!!

찰칵 사진 효과음. 엔딩 음악.

커튼콜.